

국내 증시 안정 되찾나

美 증시 요동 불구 코스피 지수 21P 올라

환율 1,150원대 육박 외환시장만 불안 지속

7천억달러대의 미국 구제금융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뉴욕증시와 달러 가치가 급락하는 등 미 금융시장이 요동을 친 영향으로 채권값과 원화가 약세를 보였다.

그러나 증권시장은 국민연금의 공매도 중단 소식과 미국 증시의 반등 기대감이 반영되며 강세로 마감했다.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달러당 8.70원 상승한 1,149.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산 중질유(WTI)가 무려 16.37달러 급등하면서 정유사의 결제수요가 대거 유입된 영향으로 환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이 2천800억원 이상 주식을 순매도한 점도 원화 약세요인으로 작용했

다.

채권시장에서는 지표물인 국고채5년물 수익률이 0.01%포인트 오른 5.91%를 기록했고 국고채10년물과 국고채5년물은 각각 0.02%포인트, 0.03%포인트 오른 6.06%와 5.88%를 나타냈다.

하나대투증권 공동락 연구원은 "미국 발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면서 달러 조달 우려가 집중하며 외국인들이 국제채를 팔 수만은 전날보다 떨어질 것"이라며 "그러나 그동안 해외발 약제들에 대한 내성이 생김에 낙폭이 제한됐다"고 말했다.

반면 주식시장에서 코스피지수는 21.03포인트(1.44%) 오른 1,481.37, 코스닥지수는 4.59포인트(1.04%) 상승한 445.72로 마감했다.

코스피지수는 장 초반 급등락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나 주시대차거래 최

대 공급처인 국민연금이 주시대차를 중단하겠다고 밝히고 7천억달러의 미국 구제금융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되며 장 후반 반등에 나서 상승폭을 키웠다.

외국인이 2천818억달러어치를 순매도했으나 기관이 3천523억달러어치를 순매수하며 장세를 이끌었다. 개인은 장 초반 반 매수에 나서다 증시가 반등하자 398억 원 순매도로 돌아섰다.

대우증권 안병국 연구원은 "아시아 증시들이 대부분 약세를 보였지만 우리 증시는 국민연금의 주시대차 중단 발표가 적극적인 시장 안정의지로 해석되며 투자심리가 호전됐다.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 진입해 있어 보수적인 관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소득층 이동 전화 요금 감면 10월부터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10월 1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관련 요금개정 등을 통해 10월 1일부터 요금을 감면해 준다.

감면 절차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신분증 등과 함께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제출하면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 범위는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료를 포함한 사용금액 3만원을 한도로 기본료(1만3천 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의 50%를 감면받고 차상위계층은 1가구당 4인까지(단 만 6세 이하 아동은 제외) 사용금액 3만원을 한도로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를 감면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요금감면 비교표

(단위: 원)

구분	사용요금 (기본료 13,000원 가정)	할인 금액	소비자 부담	할인내역
수급자	20,000	16,500	3,500	기본료 전액:13,000, 통화료 50%:3,500
	25,000	19,000	6,000	기본료 전액:13,000, 통화료 50%:6,000
	30,000	21,500	8,500	기본료 전액:13,000, 통화료 50%:8,500
차상위	20,000	7,000	13,000	기본료 35%:4,550, 통화료 35%:2,450
	25,000	8,750	16,250	기본료 35%:4,550, 통화료 35%:4,200
	30,000	10,500	19,500	기본료 35%:4,550, 통화료 35%:5,950

연합뉴스



매장에 벌써 겨울 부츠

광주신세계백화점은 23일 3층 닥스구두매장에서 겨울 부츠를 선보여 여성 고객들의 시선을 끌었다.

(광주신세계백화점 제공)

신뢰 못 얻는 美 금융시장 탓에 ... 금·유가 ↑ 주가·달러 ↓

WTI 16.37달러 폭등 유가 사상 최대폭 상승

7천억달러의 자금 투입 계획도 얼어붙은 투자 심리를 진정시키는 데는 부족했다.

미 정부의 금융회사 부실채권 매입 계획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여전히 시장을 짓누르면서 22일(현지시간) 주가와 달러화 가치가 폭락하고 유가는 사상 최대폭으로 급등하는 등 각종 지표가 또다시 요동쳤다.

◇ 미·유럽 주가 또다시 하락 =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지난 주말 종가보다 372.75포인트(3.27%)나 급락한 11,015.69에 거래를 마쳤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94.92포인트(4.17%) 떨어진 2,178.98로 마감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도 1,207.09로 전 주말보다 47.99포인트(3.82%) 하락했다.

유럽 증시도 주가가 온종일 혼조세

를 보이던 약세로 마감했다.

◇ 달러 급락, 유가 폭등 = 이날 오후 4시18분 현재 뉴욕 외환시장에서 미 달러화 가치는 1유로당 1.4808달러로 거래돼 지난 주말 1.4466달러보다 2.3% 하락했다. 달러화는 이날 한 때 1.4866달러까지 떨어져 8월22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 달러화는 또 일본 엔화에 대해서도 107.45엔에서 105.41엔으로 1.9%나 급락했다.

이날 달러화의 낙폭은 1999년 유로화 도입 이후 가장 큰 수준이다.

국제유가는 사상 최대폭으로 폭등해 한때 배럴당 130달러를 넘어섰기도 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지난 주말 종가보다 16.37달러(15.7%) 오른 120.92달러로 마감했다.

이는 국제원유가 NYMEX에서 거

래되기 시작한 1984년 이래 최대폭의 상승세다.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원유의 기준인 두바이유도 이날 배럴당 5.22달러 오른 95.10달러로 마감, 1주일만에 90달러대로 복귀했다.

이날 12월 인도분 금 값은 온스당 909달러에 달해 44.30달러(5.1%)가 급등했다.

◇ 미 정부 해결책에 불신감 = 미 정부 대책이 가져올 가장 큰 부작용은 미국의 재정적자를 확대시킨다는 점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의 재정적자가 구제금융의 여파로 1조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경제학자들이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미 정부의 대책이 당초 모기치 관련 부실 자산만 인수하는 것에서 신원카드 부채 등 다른 부실 자산의 정리까지 확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비용을 초래할지 모르는 불확실성도 불안감을 키우는 부분이다.

연합뉴스

대한상의회장 “내년 하반기 한국 경제 회복세로”

손경식 대한상의회장은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미국의 금융위기가 관건이지만 내년 하반기부터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정부의 감세정책과 규제완화 노력이 지속되고 있고 노사관계가 안정되고 있다”며

향후 경제 정책 과제로 투자의욕 고취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지속적인 규제완화, 법·제도 글로벌화를 통한 개방경제체제 확립, 합리적 노사관계 정착, 미래성장동력 육성 등 5개 과제를 제시했다.

손 회장은 또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업부문은 과감하게 철수하고 면 앞날을 내다보

면서 성장유망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기업들에 당부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기업은 성장할 수 없다”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경제의 특징에 대해 “한국이 고성장장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역동적인 국민성이 숨어있다”며 “(한국은) 인프라와 기간산업 등 경제발전의 기초가 잘 갖추어져 있고 세계 최대시장인 중국에 인접해 있다”며 외국자본 투자 의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국민銀, 1조원 펀드 조성 미분양 건설사 지원 나서

국민은행이 총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미분양 아파트 시공사에 자금을 대출해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건설사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지만, 최근 금융회사들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보수적으로 자금운용을 하고 있는 데다 건설경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펀드 조성이 성공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국민은행은 23일 “미분양 건설업자들을 돕기 위해 1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중”이라며 “국민은행이 이 펀드에 3천억~5천억 원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국내 연기금이나 시중은행을 상대로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가능한 한 연내 펀드 조성을 완료한 뒤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건설업체에 대출을 해 줄 계획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미분양 주택가격(감정가격) 기준으로 최대 60%까지 대출할 예정”이라며 “건설업체들은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펀드 투자자들은 10% 가량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윈-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그러나 펀드 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국민은행은 이미 한차례 펀드 조성에 나섰다 실패한 뒤 두 번째 도전하는 것이다.

국민은행의 또 다른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펀드 조성을 준비해 왔지만 금융기관 등이 자금난 등을 이유로 투자를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매운 맛’ 한국 라면 좋아요 올들어 수출 7천만달러로 27% ↑

매운 맛을 자랑하는 한국 라면을 즐기는 세계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23일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농수산물무역정보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우리나라의 라면 수출 실적은 7천7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6천88만달러)에 비해 26.5% 증가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라면 수출액은 1억3천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올해 전년 동기 대비 53.4% 증가한 1천748만 달러어치의 한국 라면을 수입해 최대 수입국으로 나타났고 미국이 1천174만 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일본 1천98만 달러, 호주 494만 달러, 러시아 401만 달러, 캐나다 242만 달러, 대만 222만 달러, 홍콩 136만 달러 등의 순이었다.

연합뉴스

브릭스·中 펀드 자금 이탈 확대

하루만에 620억 순유출도

올해 초 글로벌 분산투자주 주축을 맡은 브릭스펀드(Brics, 브라질·러시아·중국·인도)와 중국펀드의 자금이탈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

23일 자산운용업계와 하나대투증권에 따르면 19일 기준으로 해외주식형펀드(ETF 제외)는 827억원의 순유출을 기록해 이를 연속 순유출을 나타냈다.

특히 작년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투자자의 높은 경제 성장성 때문에 시중의 뭉치돈을 모았던 중국펀드와 브릭스펀드의 자금 이탈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지난 19일 하루 동안 브릭스펀드와 중국펀드에서 각각 320억원, 300억원이 순유출됐다.

브릭스펀드의 경우 1월에만 해도 글로벌 분산투자처로 주목받으면서 자금 순유입액이 7천55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 8월 중순 이후 투자자금 유입이 약해진 데 반해 유출이 크게 늘어난 탓에 최근 1개월 간 총 2천460억원의 자금이 순유출됐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각국 증시의 부진 등으로 브릭스펀드는 연초 이후 40% 정도 손실을 내고 있으나 연초 대규모 자금 유입 덕분에 19일 기준으로 작년 말 대비 총 9천270억원의 자금 순유입을 기록하고 있다.

브릭스펀드의 설정액은 12조8천억원으로 해외주식형펀드 중에서 중국펀드(20조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중국펀드 역시 연초 이후 39%의 손실을 내면서, 최근 1개월 간 3천750억원의 자금 순유출을 나타냈다.

동유럽과 중남미 등의 펀드도 연초 이후 자금 순유출세를 나타내고 있어 전체 해외 주식형펀드의 자금 이탈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대우자판 영업직 100명·다음 80명 채용

대우자동차판매는 승용차 영업 전문인력 채용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우자판은 조만간 출시될 대형 세단 베리타스와 준중형 라세티 후속인 J300 판매 확대를 위해 영업 전문 인력을 모집한다고 설명했다.

대우자판은 다음달 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채용에서 100여명의 인력을 뽑을 예정이다.

입사 지원은 대우자판 홈페이지(www.dm.co.kr)에서 접수하며 문

의는 채용지원센터(☎02-518-9900)로 하면 된다.

한편 인터넷포털 다음은 내달 6일까지 신입사원 공개 채용 원서를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채용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80여명 수준이 될 전망이다.

2008년 졸업자 및 2009년 졸업 예정자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다음의 인재 채용 사이트(http://info.daum.net/recruit)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062.JOBKOREA.CO.KR

업 제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센트럴관광호텔	[웨이투레스토랑/조리부]호텔서비스 정규직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24	062-383-7575
☎이타코리아	일반 사무직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800~2000	09/26	062-956-2510
☎화인코리아	[안전관리/공무/전기]/연구개발/신입 및 경력직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28	061-330-4523
☎현성오토텍	현장 납품 인員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9/29	062-942-6259
대불원건설	지게차 운전기사 임시직	고졸/경력3년	2200~2400	09/29	062-373-0428
덕문기계정밀	머신센터 정규직	고졸/경력무관	2400~2600	09/30	062-951-0737
한맥&C 광주지사	여행사업본부 책임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30	062-380-0708
☎미비	생산관리, 품질관리직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9/30	062-946-7000
우암한방병원	서비스코디네이터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30	062-260-2802
한국인포에이티브(주) 전남본부	KT고객센터(100)일반상담직	고졸/경력무관	2000~2200	10/01	062-230-1603
☎민성	절삭공구 및 공장 소모자재 납품 및 영업관리	고졸/경력무관	1400~1600	10/01	062-953-8318
동일인수위	경리업무 경력직	초대졸/경력5년	2400~2600	10/01	062-675-4950
☎대운관리공사	시설경비/관리출입업무 담당 직員	고졸/경력무관	1400~1600	10/01	062-513-2000

(광주잡코리아 062-6210 제공)